

‘무주군립요양병원’ 착공

2024년까지 치매전문병동 · 입원실 등 갖춰 조성… 공공의료 환경 개선 기대

무주군이 28일 군립요양병원 건립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무주읍 당산리 병원부지에서 열린 착공식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이해양 무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전라북도의회 윤정훈 의원, 대한노인회무주군지회 이광부 회장 등 관내 기관·사회단체장들과 1백여 명의 군민이 함께 했다. 행사는 경과보고에 이어 시삽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현장에는 건강 기초검사와 상담, 보건사업 등을 홍보하는 이동건강체험장도 마련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무주군이 28일 군립요양병원 건립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무주읍 당산리 병원부지에서 열린 착공식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이해양 무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전라북도의회 윤정훈 의원, 대한노인회무주군지회 이광부 회장 등 관내 기관·사회단체장들과 1백여 명의 군민이 함께 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기념사를 통해 “해마다 어르신 인구는 증가하고 있고 치매환자 역시 늘고 있는 추세라 공공요양병원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집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무주군립요양병원이 건립되면 군민 건강증진은 물론, 삶의 만족도 역시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장'을 위해 조성하는 곳으로 2024년까지 지하 1층, 지상 3층(연면적 5129㎡) 규모에 36개 병실, 126병상을 갖춘 예정이다. 병원 내에는 치매전문병동(42병상)을 비롯해 한방치료실과 물리치료실, 일반병실(84병상), 진료실과 약국, 프로그램 운영실 등이 조성된다. 무주군은 군립요양병원(재활·치매환자 진료 및 치료(입원), 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거점으로 보건의료원(혈

관계구축)과 종합복지관(치매환자사후관리, 치매예방 교육), 광화요양원(치매노인 통합 돌봄, 치매가족 상담지원)을 잇는 공공의료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으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토지매입부터 각종 심사 및 심의, 인허가, 운영기본계획 수립 등을 마무리하고 이날 착공했다. 2024년 하반기 공사를 마치는 대로 의료시스템을 구축해 즉시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1읍 · 면 1특화작목 육성 최선

무주군, 농업환경 변화 대응 위한 특화작목 개발 연구용역 착수

무주군이 1읍·면 1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28일 무주읍 당산리 병원부지에서 열린 착공식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이해양 무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전라북도의회 윤정훈 의원, 대한노인회무주군지회 이광부 회장 등 관내 기관·사회단체장들과 1백여 명의 군민이 함께 했다.



무주군 농업환경 및 현황조사와 함께 특화가능 작목조사, 특화작목 육성사업 조사, 1읍·면 1특화작목 수립, 재원투자계획을 착실하게 다져 나갈 방침이다.

군은 1읍·면 1특화작목을 육성해 소득과 직결된 연구개발, 기반조성 등에 예산을 투입해 육성된 특화작목을 무주 브랜드 작목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에 군은 28일 군수실에서 황인홍 군수를 비롯해 전북대학교 산업협력단 관계자, 공직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1읍·면 1특화작목 육성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실행에 들어갔다.

이런 개발과 연구의 목적은 무주군의 농업을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특화작목의 외연확장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함으로써 고소득 작목을 육성하면서 정주여건 및 살기 좋은 농촌마을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군은 용역결과를 토대로 지역의 특화작목 설정과 수요에 맞는 중·장기 발전과 추진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

이다. 무주군 농업환경 및 현황조사와 함께 특화가능 작목조사, 특화작목 육성사업 조사, 1읍·면 1특화작목 수립, 재원투자계획을 착실하게 다져 나갈 방침이다.

무주군 1읍·면 1특화작목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는 오는 12월 마무리될 계획으로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특화작목 개발에 착수하기로 했다. 황인홍 군수는 “덕유산과 대덕산, 적상산 등 높은 산의 분지 지형과 금강 상류의 곡간 하천에 따른 농지여건, 기후환경, 토양특성 등 여건을 활용한 신규 지역 특화작목을 개발해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이끌어 내겠다”며 “특화작목 개발이 군 발전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환경부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공모사업 선정

진안군은 환경부에서 공모한 ‘2023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

치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업체에서 충전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를 하게 된다.

이런 공모사업은 갈수록 증가하는 전기자동차 보급에 맞춰 충전 기반시설 구축으로 지역주민 및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됐으며 자치단체와 민간충전사업자가 함께 공모에 참여해 도내에서는 진안군을 비롯해 9개 시군이 선정됐다.

이에 진안군은 환경부에서 ‘급속충전 시설 보조사업 설치운영지침’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진안군 브랜드사업 공모 대응 민간충전사업자 모집 공고를 실시하고 제안평가를 통해 함께 사업을 수행할 민간업체로 ‘썬이차차’를 선정해 공모사업에 참여했다.

군은 공모사업 선정으로 총 25억원(환경부 7억원, 민간업체 자부담 18억원)을 투입해 전기차 충전기가 필요한 공공시설, 공연주차장, 관광지 및 읍·면 등 19개소에 급속충전기 38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향후 (썬)이차차지는 환경부와 협의 및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8월경까지 충전기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5년 이상 운영·관리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가져

장수군이 민선8기 공약이행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수군은 27일 군청 회의실에서 공약사업 14개 소관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상반기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군은 민선8기 취임 이후 공약사업의 투명하고 내실있는 관리를 위해 매년 분기별로 공약이행평가 군민배심원단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장수군청 홈페이지에 공약사업의 추진상황 및 달성여부 대국민 공개시스템을 구축해 공약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최훈식 군수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는 5대 분야 70개 공약사업 중 추진상황이 미흡한 40개의 공약사업에 대해 추진실적, 실적 제고 방안, 향후 추진

농업기술센터 고경식 소장은 “작목별 영농현장 컨설팅 참여를 통해 미니단호박 농가들의 농업금융증을 해결할 수 있었으며, 미니단호박 재배 시범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무주군, 농가 농기계 구입비 50% 지원

무주군이 농가의 농촌인력 부족과 농작업 편의를 위해 농기계 24대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농업인들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고 농업생산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올해 총 사업비 32억 원(일반 농기계 30억, 축산농기계 2억)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농기계 지원 사업은 농기계 구입비의 50%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농업경영체로 25만 원 이상 농기계를 구입하는 희망 농가가 대상이다. 최근 농기계 보조사업 수혜실적이 없는 농업인을 우선 선정했다. 지원한도는 1대 2천만 원(보조 50%, 자담 50%)이다.

대상자 선정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교부신청서를 접수받을 계획이며, 4월부터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은 실용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농가에서 필요한 기종을 등록된 농기계 기종에 따라 자율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고품질 미니단호박 생산 전문가 양성

진안군은 본격적인 고품질 미니단호박 생산을 위한 전문가 양성에 나선다.

군은 28일 미니단호박연구회와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작목별 영농현장 컨설팅’을 운영했다.

이날 찾아가는 영농컨설팅은 농촌진흥청 고객지원담당관실과 협력으로 진행됐으며, 재배 농가의 영농 애로사항을 사전에 파악해 추진되는 맞춤형 현장교육으로 농가의 호응을 얻었다.

핵심 재배기술, 병해충, 토양 등 분야별 농업전문가들이 이론 교육을 진행한 뒤, 미니 단호박 재배예정지를 찾아가 정식 전간이 토양 검정을 실시하는 등 영농현장 궁금증을 해결해줬으며, 재배 시기에 따라 2회 이상 컨설팅을 더 진행할 예정이다. 농업기술센터 고경식 소장은 “작목별 영농현장 컨설팅 참여를 통해 미니단호박 농가들의 농업금융증을 해결할 수 있었으며, 미니단호박 재배 시범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어린이집 운영 안정화 위한 간담회 개최

최훈식 장수군수, 어린이집연합회 애로사항 청취 · 대응방안 논의

최훈식 장수군수가 지난 27일 군청 회의실에서 장수군 어린이집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정자영 장수군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최근 지역의 영유아 수가 급감하면서 어린이집 운영난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며, “맛

최훈식 군수는 “우리 지역의 미래인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것이 군의 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영유아 보육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 또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타 지자체의 사례를 비교 분석해 합리적인 어린이집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발이 가정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양육 공백으로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영유아 보육 기관에 대한 지원정책이 절실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중국 상락시와 우호협력 강화

진안군은 28일 중국 내 우호도시인 섬서성 상락시와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한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다.

진안군은 2012년 중국 섬서성 상락시 내 ‘진안현’이라는 지명이 인연이 돼 양 도시 간 우호의 증진을 위한 국제교류

상호 방문을 통해 본격적인 우호 관계 맺으며 긴 인연을 이어나가고 있다.

상락시 관계자들은 진안홍삼연구소를 시찰하며 진안홍삼산업 정책에 대해 청취하고, 홍삼한방센터를 견학하는 등 중국 내에서 각광 받고 있는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진안군의 자원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표하며 관련 교류에 대해서도 방안 마련에 공동으로 나서기로 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